

印度哲學·佛敎學 全分野를 망라해서 정리할 수는 없었다. 본 논문집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는 다른 기회에 정리될 것을 기대해 본다.

한 가지 알려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1995년 1월의 韓國留學生印度學佛敎學硏究會 臨時總會에서 이제까지 준비해온 硏究史 整理論文集을 單行本으로 出版함과 同時에, 從來에 東京地域留學生들이 발간해 오던 學會誌인 『韓國佛敎學SEMINAR』 第六号의 韓國語特輯版으로 동시에 출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는 후, 한국의 大韓佛敎振興院과 大韓佛敎曹溪宗敎育院 그리고 伽山佛敎文化硏究院에서 자료조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며, 출판사는 최명현 교수님의 소개로 서울의 亞細亞文化社에서 맡아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95년 8월에 본격적인 출판 준비에 들어가 약 3개월만에 이처럼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논문집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東京大學의 正圓스님의 적극적인 열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人名索引 作成을 맡아준 李泰昇 博士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자료조사비를 지원해주신 각 단체와 출판을 맡아 주신 아세아문화사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佛紀 2539年 10月 31日

韓國留學生印度學佛敎學硏究會
會長 日 藏

韓國佛敎學 SEMINAR

— 既刊號 總目次 —

第一號(1985. 12)

- 新羅華嚴의 思想史的意義····· 鎌田 茂雄···(1)
- 『大乘六情懺悔』····· 木村 清孝···(15)
- 韓國僧伽의 鉢盂供養作法について····· 梁 銀 容···(43)
- 煩惱所知二障と人法二無我の硏究序說····· 李 平 來···(67)
- 光宗의 佛敎政策と均知의 華嚴思想····· 李杏九(道業)···(81)
- 佛身論思想의 展開—大乘莊嚴經論を中心に—····· 全 宗 釋···(94)

第二號(1986. 12)

- 『宣和奉使高麗圖經』의 『圖解』의 再現について····· 中 吉 功···(1)
- 韓國佛敎傳統講院의 履歷制度硏究····· 蔡 印 幻···(6)
- 新羅의 華嚴敎學への一視占
- 一元曉·法藏融合形態をめぐつて····· 吉 津 宜 英···(37)
- 華嚴經·十回向品の 考察····· 陳永裕(本覺)···(50)
- 初期佛敎 Gahapati の 宗教觀念
- Suttanipāta を中心とした文化試論—····· 金漢益(悟震)···(1)

第三號(1987. 12)

- 文武王と佛敎····· 田 村 圓 澄···(1)
- 高麗清規としての 誠初心學人文····· 佐 藤 達 玄···(19)

華嚴教判論……………張愛順(戒環)…(35)
 現代巫俗の比較研究……………柳春姬…(53)
 侍者 ANANDA……………崔庚滿(淨印)…(27)
 Karma and Economic progress……………A. SUMANASARA…(1)
 會員名簿および研究會報

第四號(1990. 8)

諸思想の對立と宥和……………中村元…(1)
 佛像にみる二つの姿……………西村公朝…(7)
 円測と法藏……………木村清孝…(15)
 -教體論の關わりについて-
 義相の法諱考……………金知見…(31)
 -海東本華嚴の歷運をめぐって-
 韓國における葬送習俗の一考察……………金永晃(禪晃)…(87)
 永明延壽の淨土思想……………韓京洙(宗澤)…(103)
 會報……………(119)

第五號(1993. 8)

八世紀東アジア佛教研究への展望……………吉津宜英…(1)
 韓國佛教・禪の自然觀と現代の諸問題……………蔡澤洙…(23)
 韓國における葬墓制について……………金永晃…(43)
 天台教學における円教……………曹良淑(日藏)…(61)
 華嚴觀法の研究(博士學位論文要旨)……………陳永裕(本覺)…(77)
 Dar ma rin chen の中觀莊嚴論備忘録について…李泰昇…(21)
 華嚴經の經題について(2)……………眞野龍海…(1)
 會報……………(83)

일본학자 인명색인

가

구모이 쇼젠(雲井昭善) 213, 269
 구보다 료엔(久保田量遠) 668
 기무라 기요타카(木村清孝) 669, 673, 678, 689, 691,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 8, 12, 31, 168, 170, 197, 229, 342
 기무라 도시히코(木村俊彦) 17, 439
 기무라 류도쿠(木村隆徳) 471
 기무라 세이지(木村誠司) 439, 444
 기타가와 히데노리(北川秀則) 21

 나
 나가사와 지츠도(長澤實導) 435
 나가사키 호준(長崎法潤) 198, 311
 나가오 가진(長尾雅人) 354, 359, 471
 나가이 마코토(長井眞琴) 203, 211, 228
 나니와 센묘(浪花宣明) 219, 319
 나라 야스아키(奈良康明) 217, 298
 나이토 아키히미(内藤昭文) 440
 나카다 나옴치(中田直道) 15, 32
 나카무라 료쇼(中村了昭) 33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8, 12, 27,

 가
 가나오카 슈유(金岡秀友) 19
 가나자와 아츠시(金澤篤) 128, 184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8, 12, 30, 119, 169, 171, 240, 398
 가마다 시게오(鎌田茂雄) 595, 669, 673, 677, 689
 가미무라 가즈히코(村上勝彦) 26
 가시오 지카쿠(樫尾慈學) 16
 가와구치 켄(川口賢) 25, 185
 가와사키 신조(川崎信定) 444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 364, 375, 400, 413, 426, 432
 가타야마 이치로(片山一良) 208, 316
 가토 준쥬(加藤純章) 348
 간노 히로시(菅野博史) 552
 고가 에이켄(古賀英彦) 347
 고바야시 마로무(小林守) 453, 470
 고바야시 엔쇼(小林圓照) 684
 고지마 다이잔(小島岱山) 692
 구기미야 다케오(釘宮武雄) 683
 구라다 하루오(倉田治夫) 21, 185
 구로다 히로시(黒田泰司) 22

* 편집자註: 본색인은 각논문의 본문에서 집필자가 밝히고 있는 일본인 학자의 인명에 대한 색인으로, 따라서 각논문에 실린 저술 혹은 논문 저자에 대한 인명색인은 아니다. 각각 논문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인명도 편집자가 임의로 취사 선택한 것이며, 일본학자의 인명에 대한 표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것이다.